

심니소식

115호

니 성 교회



심 성 교회

7월 12일, 2026년

NASUNGCHURCH.NET

115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45장 1-10, 25-28절

날짜: 6월 28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창세기 45장은 요셉이 형제들이 참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철저히 시험한 끝에 맞이한 영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이 깊은 뉘우침을 통해 회개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마침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이 요셉의 나타남은 살려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받을 때, 주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둬나게 하신 것입니다.

두려움과 정죄감에 사로잡혀 입을 열지 못하는 형제들을 향해, 요셉은 도리어 가까이 오라며 위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저지른 악행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거대하고 신실한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7년의 대기근 속에서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요셉이 모진 고난을 통과하여 바로의 아버가 되고, 그 온 집의 주가 되며,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된 사건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총은 죄로 인해 정죄된 인생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가장 감격스럽고 기쁜 소식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비밀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언한 후에야 형들은 비로소 입이 열려 요셉과 마음 놓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이 기쁜 소식을 가나안에서 홀로 슬퍼하고 계실 아버지 야곱에게 속히 전하라고 간청합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누리는 영화와 온전한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신을 태우려고 보낸 왕궁의 수레를 눈으로 직접 보고서야 야곱의 영은 소생했습니다.

이 수레는 아무나 탈 수 없는 권능과 승리의 표징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보좌에 승천하신 후, 이 땅에 보내신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 수레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승리를 믿게 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며, 마침내 영원한 천국 보좌로 인도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안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영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영과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몸이 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얼마만큼 노력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매여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신화와 율법적인 행위는 주님을 가장 슬

프게 하는 일이며,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을 흠집 내는 행위입니다. 기독교는 내 힘으로 주님의 본을 받아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되셔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 사람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순간적으로 죄를 범할지라도, 다시 절망하며 율법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벌주고 고통 속에 밀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성된 영의 법으로 돌아가 "이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청산되었구나"를 깨닫고 영안으로 돌아켜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길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비로소 나의 참된 주인이 되셔서 행하십니다.

자아가 죽은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제들을 향한 비난이나 정죄가 조금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도를 깊이 통과했기에 조건 없는 완전한 용서와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 얻은 형제들끼리 용서하고 화목하는 것은 그리스도 몸의 마땅한 생리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두 사람만 모여도 시끄럽지만, 만 명이 모여도 내 자아가 죽어버리면 오직 내 안의 예수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유기체적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감정과 내 판단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꿈만을 생애 목적으로 삼고 나아갑시다. 그럴 때 육신에 속한 모든 생활의 문제는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내 안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Sermon of the Week:

Joseph's Life: Death to Self to Give Life to Others



Passage: Genesis 45: 1-10, 25-28 (ESV)

Date: June 28, 2026

Pastor: Dong Suk Chung

Genesis 45 opens with Joseph's response to Judah, who offered his own life for Benjamin's freedom. Seeing Judah's transformation and willingness to sacrifice himself, he weeps loudly and reveals that he is Joseph. The brothers are terrified, paralyzed by the weight of their past guilt and the sudden realization that the ruler of Egypt holds their lives in his hands.

The brothers' guilt was real. They had hated him, sold him, and lied to their father. Yet, instead of retaliating with vengeance, Joseph extends grace. He draws them close and says: "Do not be distressed or angry with yourselves because you sold me here, for God sent me before you to preserve life." Their betrayal and the very situation that seemed so treacherous is actually the unfolding of God's perfect plan: positioning Joseph to become the very means of saving the family that tried to destroy him.

Joseph—rejected, sold, imprisoned, then raised as a trusted leader over Pharaoh's house and all of Egypt with the absolute authority to preserve life—is a shadow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Jesus didn't simply help us improve ourselves—He took our place entirely, so that our old, guilt-ridden selves were put to death and we were raised to life as new creations in Him. Through this gospel lens, our identity is fundamentally changed. We don't have to keep straining to become good enough or endlessly try to fix what's broken in us through sheer willpower. The identity we're

given isn't earned through effort; it's the one He secured for us at the cross.

When the brothers returned with news that Joseph was alive, their grief-stricken father, Jacob, couldn't believe them. It was only the sight of the royal wagons full of gifts that Joseph had sent which revived him because it was proof that his son was alive and reaching out to him.

In the same way, Christ sent us a gift that carries the same kind of certainty: the Holy Spirit. When we were groaning and suffering under the weight of our sins, the Lord came into our midst through the gift of His Spirit to give us new life, giving us the wisdom and strength to reflect Christ.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where we exhaust ourselves trying to copy Christ's example through human effort. We do not face our daily trials alone; the Spirit of God provides everything.

This changes how we see the people around us. Left to our own instincts, we clash with family members, coworkers, or neighbors—judging them against our own expectations and finding them lacking. Humanity's problem has been the desire to be the author of our own story. We think that if we can control our environment, our families, or our futures, we will find peace. But true peace is not the absence of trouble; it is the presence of Christ.

Joseph could have let bitterness dictate how he treated his brothers. But he understood that his suffering was not meaningless, nor was his rise to power meant for his own comfort. He was blessed to be a blessing; he was sent ahead to preserve food to save lives in the coming famine. Because his old self—with its right to resentment and retaliation—had died during his years of suffering, he was free to love his enemies. He didn't see his brothers through the lens of past trauma, but

through the lens of God's sovereign purpose. He understood what Romans 8:28 teaches: that God works all things together for good for those who love Him, according to His purpose. Even the wrongs done against us are not wasted; they become material for a purpose we may not yet see. When we let go of our defense mechanisms and allow Christ to live through us, we stop reacting out of fear and start responding with wisdom and grace.

Every believer is called to this same perspective. Most of us are carrying some version of the brothers' guilt. Joseph's response was to trust a larger story none of them could have written on their own. The same is true for us as it was for Joseph. Stop straining to manage your own redemption story. Stop rehearsing the wrongs done to you or by you. The Spirit who revived Jacob at the sight of the wagons is the same Spirit at work in you now. When we "die daily" to our anxieties, demands for specific outcomes, and need for control, we create space for the Holy Spirit to move.

The difficult environments we find ourselves in—the stressful workplace, the tense household, the fractured community—are not accidental. God has placed you there intentionally. He is using your daily surrender as a channel through which His grace can flow to touch the hardened hearts around you. As you face next week's challenges, remember that Christ has already won the ultimate victory. The pressure is off your shoulders. We do not have to force a resolution in our own strength; we simply need to get out of the way, step into our identity as new creations in Christ, and watch how God transforms our crises into displays of His glory.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